

<2012년 3월 25일 주일말씀>

영을 위해 살아라

본 문 로마서 8장 5-10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달에 새로 오신 분들과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주일입니다.

이 달에 새로 오신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새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실로 환영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을 반겨 주십니다.

<영상1>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반겨 주시는 모습
음악도 넣고 실감 나게 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을 세상에서 키우고 사랑하시다가 각자 구원의 때가 되어 전도의 사명자들을 통해 교회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믿고 행할 시대 말씀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면 못 합니다.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생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 몰라서 그저 안다고 하는 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배우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커 가면서 알고 보니, 너무 성경을 모르고 가르쳐 주어 잘못 알고 믿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오직 성경만 배웠습니다. 주님께 배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모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같이 이 말씀을 세상에 가르쳐 주어 모든 인생들을 제대로 구원하자.” 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의문을 파헤치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쓰시고 내 입으로 시대 말씀을 외치시며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고로 기존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나 성경의 각종 의문을 갖고 있던 자들의 의문이 다 풀어져 이같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영으로 사는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상2>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선생님 몸 쓰고 외치는 모습
섭리사가 점점 커지며 점점 군중들이 모이는 모습

교회를 수년씩, 수십 년씩 다니며 말씀을 듣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잘 모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왜 나 여호와가 인간이 계산한 시간으로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인생들을 창조했으며, 수만 년의 시간을 들여 인류를 발전시켜 오늘날과 같이 인간을 아름답게 변화시켰는지 너희에게 시험문제를 내고, 만일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맞히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주고 너희 육신이 죽으면 너희 영을 꼭 천국에 데려오겠다.” 하셔도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이 답을 맞히려나?’ 할 정도입니다.

<영상3>

- 우주, 지구의 모습
- 인류 진화, 발전 과정 (원시시대부터 현대인까지)
- 삼위(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지구 위에 계시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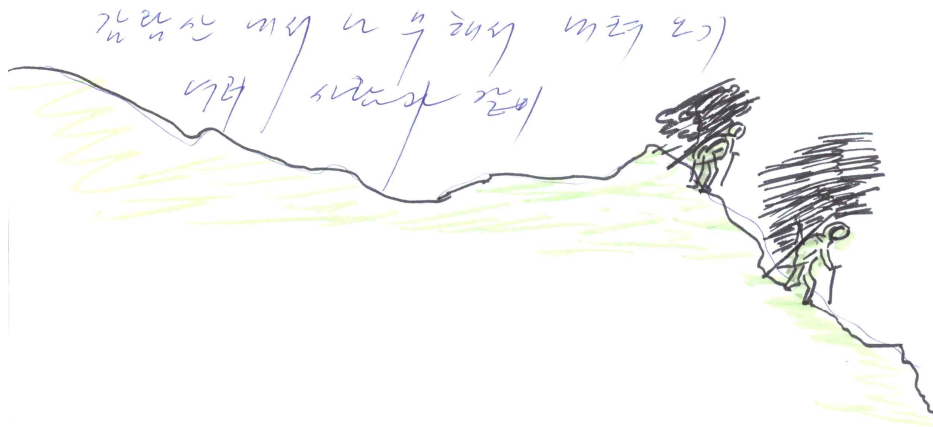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기성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몇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창조했다.” 라고 말하면 100점 만점에서 20점 정도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라고 말하면 100점 만점에서 50점 정도입니다.

모르면 이같이 말만 많습니다. 편지 쓸 줄 모르면 며칠 동안은 쓰기도 장수(張數)만 많고, 막상 읽어 보면 할 말도 제대로 못 써서 내용이 없습니다. 인생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모르고 살면 말은 많은데 실속이 없이 살고 어렵게 살게 됩니다. 인생을 알고 살아야 쉽게, 어렵지 않게 살게 됩니다. 인생 일생을 두고 사니, 꼭 인생을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모르고 살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미래도 없고, 허무로 끝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① 선생이 어렸을 때 한때, 육신을 위해서 매일 80% 시간을 내서 살았고, 영적인 것, 곧 신앙을 위해서는 20% 정도 시간을 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그 결과, 현실은 있는데 미래가 없었습니다. 또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적인 희망이 없었고 미래에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내서 인생을 사니 육적으로 삶이 곤고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의 곤고가 너무도 커서 한계를 맞고 인생 사는 맛이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③ 그래서 기도생활을 하면서 영적 시간을 80~90%까지 켜고, 육적 시간은 10% 정도만 켜습니다. 그래도 인생 사는 데는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육신은 좀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육의 미래가 희망적이었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적 희망이 90% 이상 확실하니 너무 기쁩니다.

④ 이 같은 삶을 계속 사니 마치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심고 5~10년이 넘으니까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듯, 육의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희망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주님이 사역자로 쓰는 몸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은 삽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살면, 미래에 ‘육’은 시체 하나로 끝나고 ‘영’도 사망권에 거하여 시체와 같은 삶으로 연속됩니다. 영적으로 살면, 육은 조금 고생되지만 미래에 희망이 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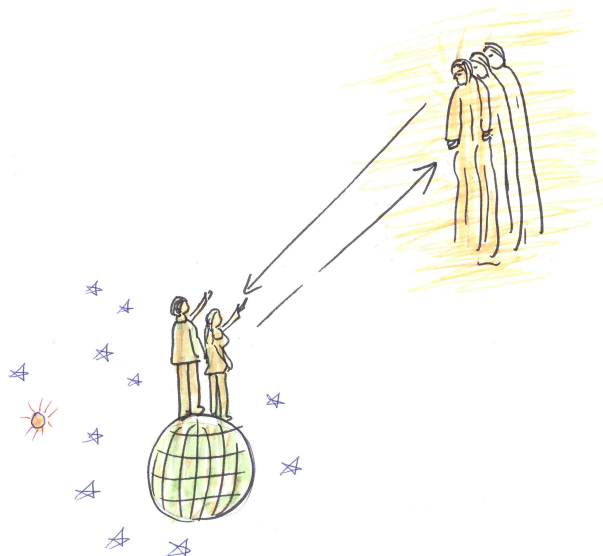
<영상4>

- ① 초안 (다시 그리기.)
- ② 아무리 일을 해도 인생의 곤고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더 번뇌하는 모습 (자막과 섞어서 제작)
- ③ 거의 모든 시간에 기도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모습 / 나머지 시간에 나무하고 농사짓는 모습
고로 육적으로 좁고, 배고프게 사는 모습
그러나 영적으로 희망에 차서 기뻐하는 모습
- ④ 주님께 뜻을 받고, 새 역사 시작하고, 청중 가운데서 외치는 모습
- ⑤ <육적으로 살면> 육은 시체로 끝나고, 영은 사망권에 거한다.
<영적으로 살면> 육은 좀 고생하지만, 영은 생명권에 거한다.
영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천국 상속받는다.

(*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창조하시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사는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② 고로 우리는 창조자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③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절대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듯이, ④ 우리도 시대 말씀을 듣고 육도 영도 하늘의 신부로 변화되어 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되기까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차원의 삶은 오직 사랑하는 자만 희망으로 보고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랑의 삶입니다.

⑥ (마태복음 22:37-38 성구 자막)

⑦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모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영상5>

① 우주, 지구 창조

② 초안

③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모습 (실감 나게)

④ 시대 말씀 듣고 육도 영도 신부로 변화 (육적 휴거 도표)

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의 모습
사랑으로 교통하는 모습

⑥ 성경책 펼쳐져 있는 모습

<자막>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⑦ ‘②’ 그림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상6>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 왜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7>

① 전능하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생명체 세계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한 것은 오직 영원한 사랑 때문이다.

② 사람의 육만 창조하려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육만 창조하면, 아무리 육신이 전능자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도 육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간도 허무하게 끝난다. 고로 육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③ 육을 터전으로 하여 영을 창조했다.



④ 사람의 육이 전능자와 그 보낸 메시아를 믿어 구원받으면, / 육신이 죽어도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된다. 고로 육을 터전으로 하여 영을 창조했다.

⑤ 이것이 창조자 편에서 보는 창조 목적이며, 세상 인간 편에서 보는 인생 삶의 목적이다.

<영상7>

① 우주, 지구, 인간의 영과 육 나오며 ‘오직 사랑 때문이다.’ 자막

② 육신이 성장하여 나이가 드는 모습, 결국 죽어 끝나는 모습

③ 삼분설 도표

④ <영상5>의 ‘②’ 삽화 나오고 /

‘육’은 죽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영’은 화살표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

⑤ 자막

(* 왜 인간이 영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상8>

① 육신만을 위해 살면, 육만을 위해 사는 짐승같이 육신의 삶으로 허무하게 끝난다. (갓가지 동물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죽는 모습을 조금 더 보여 준 후에 다음 설교 내용에 따라 영상 나간다.)

② 육신만을 위해 살면, 육신이 생을 다하여 세상에서 죽고 썩으면 ‘무(無)’로 끝나고, 그 영도 구원받지 못한 영으로서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살게 된다. 영이 죽어서 썩은 채로 사는 격이다.



③ 육신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과 나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고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영을 위해 살면, 그 영향으로 ‘육’도 전능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육과 마음에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④ 그에 따라 ‘영’도 세상에서 육을 쓰고 있을 때 하늘나라 영으

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람 있게 살게 된다. ⑤ 그러다 육이 죽으면 육의 선한 마음과 생각과 혼을 영이 흡수하여 영과 일체를 이루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⑥ 이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너희 육을 창조하고 너희 영을 창조하셨다. 이를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영상8>

① 자막 - 짐승이 먹고 살기만 하다가 죽는 모습

② 초안 (다시 그리기.)

③ 육신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중심자와 같이 사는 모습

이에 따라 ‘육’도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가 된다.

④ ‘영’도 하늘나라 신부의 영으로 변화된다. (옆에 육이 같이 있다.)

⑤ 육은 무덤 / 영은 육의 마음, 생각 흡수하여 하늘나라로 간다.

⑥ 자막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 아무리 먹고 입고 취하며 살아도 곤고하고 힘들고 허무하다. 동물이 사는 목적은 먹고 입고 취하며 사는 것이라서 육을 위해 살아도 인간같이 정신적 영적 곤고의 고통을 겪지 않는다.

인간은 ‘영’을 위해 살지 않으면 1000년을 살아도 영의 것이 남지 않는다. 고로 허무하다. 영을 위해 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위대하게 살라는 것이다.

전능자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자가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자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한 자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다. 세상 왕이 됐어도, 재벌이 됐어도, 영웅 열사가 됐어도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짐승같이 육으로 끝난다. 그 영도 영원한 희망을 상실한다. 영을 구원하고 사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

인간은 ‘영’을 근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에 영을 위해 살지 않으면 육신의 삶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영이 곤고하여 육도 허무와 곤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오는 고통을 매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고로 인생이 왜 사는지, 왜 먹어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인생길을 찾지 못하고 각종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짐승같이 살기만 하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주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육도 사망의 삶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와 정신적 해방, 영적 해방을 받고 산다. 그러므로 영도 사망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사는 영이 된다. 가시덤불 속에서, 밀림 속에서, 굴속에서 살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와 살아 보지 않으면 모른다. 너희가 천국에 안 와 보고 어떻게 천국의 삶을 알겠느냐.

땅속 토굴 속에서 살던 자들을 빛의 세계로 나와서 살라고 이 역사로 이끌어 왔다. 이제부터 너희는 나 예수의 시대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빛 가운데로 나와 영의 삶을 살아라. 이 세상 어떤 인생이든지 영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짐승과 똑같이 육적인 것에서 끝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나 예수는 성자로서 전능한 영이니 영에 대해 알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 선생은 너희같이 육을 가진 자이지만, 육신이 한세상을 사는 데 있어 영으로 사니 영원한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육도 영도 잘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영으로 사니 육도 성공하고 영도 성공한 자가 되었다. 너희도 그같이 살라고 나 예수가 시대의 표상으로 만들어 보낸 것이다.

(*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① 전능자 하나님과 나 예수는 ‘영’인데, 육인 너희가 영을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

② 영으로 살라는 말을 깨달아라. / 너희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창조주 하나님과 나 예수를 절대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대에 내가 나의 육으로 쓰고 나의 손발로 쓰는 자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 이 시대에 영으로 사는 삶이다.

③ 너희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며 살면 /
‘육’도 세상 사망의 어둠에서 나와 점점 빛난 하늘의 사람이 되고, 그
육의 행실과 마음에 따라서 ‘영’도 어둠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어
점점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어 온전한 영이 된다.

④ 너희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너희 ‘영’이 나의 창조 목적을 이루
어 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 그에 따라 ‘육’도 하나님과 나 예수
의 신부가 되어 땅에서 휴거의 몸이 되어 신부의 삶을 산다. / 그리고
‘영’은 천사장이 나팔 불 때 나의 재림의 날에 하늘로 휴거되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상9>

① 자막

② 자막 /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선생님 : 믿고 따르는 모습

③ 예수님 안에 있는 선생님

↓ 시대 말씀

육, 영

‘육’이 사망권에서 나와 점점 빛나는 사람이 되는 모습

‘영’이 사망권에서 나와 점점 하늘의 형체로 만들어지는 모습

④ ‘영’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

그에 따라 ‘육’도 하나님과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산다.

그러다 주님의 재림의 날, 영은 천국으로 휴거된다.

나 예수의 재림 전에 속히 변화된 영이 되어 나를 맞고 휴거되어 영
원한 빛 가운데서 살고, 천국에서 사는 영이 되라고 오늘 이같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너희를 사랑하는 주 예수니라. 살롬!

<축 도>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려고 우주와 지구와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영을 위해 살라고 말씀해 주시어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미래를 갖게 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감동시키사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모든 자들과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